지역기업 ESG 경영 확산 모색

전주시, 내달 1일 ‘제2차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기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시는 다음 달 1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ESG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제2차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쏘셜공작소가 주관하고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와 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회장 임동욱)이 공동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포럼은 중소기업인엽합회 소속 기업인들을 비롯해 시민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한성 KMA ESG 경영센터장은 ‘ESG 시대, 전주지역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 또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은 ‘ESG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를 주제로, 김진희 LG이노텍 CSR팀 책임은 ‘ESG 경영 정착을 위한 공급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들은 ESG 기업 경영을 위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이나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에 특히 필요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자와 참여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종합토론도 마련된다. 종합토론은 ‘ESG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실행 방안’을 주제로 사전설문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참여방법은 네이버폼(http://naver.me/xPIABQVO)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참여자로 선정되면 자료집을 당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포럼 시작 15분 전 해당링크를 안내받게 된다. 또 발표자들에게 미리 질문하거나 전달하고 싶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사전 질문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는 ESG 관련 책이 증정된다.

김승수 시장은 “환경과 사회, 윤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ESG는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전주시와 기업의 협력 모델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기업 등의 의사결정시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기존 전통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앞다퉈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 전국 지자체 평가 ‘대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전주시는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 참여해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 참여해 대상을 수상했다.

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일자리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이날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2019년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639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9625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가 있었음에도 수행기관과 함께 비대면 일자리를 추진하고 생활방역 사업을 신규 발굴하는 등 맞춤형 대안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올해는 2020년보다 2208개 많은 1만 1903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 등 15개소 수행기관을 통해 ▲공익활동형(환경정비, 노노케어, 교통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형(통합돌봄서포터즈, 공공기관 업무보조 등) ▲시장형(제조판매, 카페 등) ▲취업알선형(아파트 경비 등 수요처 인력파견)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와 관련 올해 초 어르신일자리팀을 신설한 시는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저출생·고령사회 인구문제 극복 모색

전 국민 대상 ‘전주시 인구정책 UCC 공모전’ 개최

전주시가 결혼·출생·육아 등 긍정적 가치관을 높이고 저출생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21 전주시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방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공모주제는 ▲결혼·임신·출생·육아 등 긍정적 가치관 제고 및 저출생 극복 ▲가족친화 문화기반 및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문화복지, 주거환경, 정주여건 등 전주의 인구유입 확대 ▲다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의 전주이야기 ▲전주청년 울고 웃다, 전주 속 청년이 살아가는 희망 이야기 ▲기타 전주시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 총 6개로, 30초~5분 이내의 브이로그, 드라마, 광고 형식의 영상 작품을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당 2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공모신청서를 작성한 뒤 avi, mp4, wmv 형식(1280*720 이상)의 영상작품과 함께 이메일(myjhr8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전달성, 활용성 등을 평가한 뒤 올 12월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한 뒤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하고, 시장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인구문제는 소수의 관심보다는 다수의 참여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주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개최

내달 26일까지 도내 대학생 대상 탄소중립 · 관광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 콘텐츠 발굴

전주시가 탄소중립이나 관광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담긴 메타버스 콘텐츠를 발굴한다.

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뉴딜, 메타버스에 올라타다’를 부제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주시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담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구현하고 싶은 전주 이야기’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참여 유도 방안 ▲(청년정책) 실효성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방안 ▲(전주관광)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돼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우리동네) 실존하는 마을에 새롭게 담고 싶은 모습 제안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대학에 다니는 재·휴학생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할 아이디어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콘텐츠 기획서에 기술한 뒤 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우편(완산구 노송광장로 10, 2층) 또는 이메일(THINKHIGH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원활한 공모 추진에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예정이며, 시는 제출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기획의 적합성, 독창성, 효용성 등을 평가한 뒤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노력상 3명을 선정하고, 최대 7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콘텐츠의 경우 전주시 담당부서의 검토를 통해 시정 반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형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지식을 겸비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3인을 메타버스총괄자문관으로 위촉해 메타버스 정책 기획 단계부터사업 수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을 맡기기로 했다. 또 전주시와 메타버스총괄자문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주형 메타버스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도내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2021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해왔으나, 지원신청자 급증으로 지난 5월 예산이 모두 소진돼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신청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다.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에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된다.

올해 이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예산 소진으로 교통카드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취소 결정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마이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